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4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심 미사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3.5-6

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이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⁵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⁶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9ㄴㄷ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 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 환호송

루카 1,28 참조

◎ 알렐루야.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

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일
연중 제3주간 토요일

제1독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2,1-7ㄷ.10-17

그 무렵 ¹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²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³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⁴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⁵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⁶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

⁷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¹⁰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¹¹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할 것이다. ¹²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¹³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¹⁴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¹⁵ 그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¹⁶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¹⁷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12-13.14-15.16-17(◎ 12ㄱ)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5-41

³⁵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³⁶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³⁷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³⁸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 저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⁴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⁴¹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일 주일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제1독서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²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³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⁴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4(23),7.8.9.10(◎ 10ㄴㄷ)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2독서 〈예수님께서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14-18

¹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¹⁵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⁶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

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피 주십니다.

¹⁷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⁸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2,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복 음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또는 2,22-32>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²²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²³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²⁴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²⁵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²⁶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²⁷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²⁸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²⁹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³⁰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³¹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³²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³³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³⁴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³⁵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³⁶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³⁷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³⁸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³⁹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왔다.

⁴⁰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

제1독서 <압살롬에게서 달아납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5,13-14,30; 16,5-13ㄱ

그 무렵 ¹³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¹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³⁰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16,5}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⁶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⁷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뢰한아! ⁸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⁹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10 그러나 임금은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11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12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13 다윗과 그 부하들은 길을 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2-3,4-5,6-8ㄱ(◎ 8ㄱ 참조)

- ◎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 어찌 이리 많사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 많기도 하옵니다. “하느님이 저런 자를 구원하실까 보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 많기도 하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저의 방패, 저의 영광, 제 머리를 들어 높이는 분이시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나이다. ◎
-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시기에, 누워 잠들어도 나는 깨어나니,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20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1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2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4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5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⁶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⁷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⁸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¹¹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¹²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¹³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¹⁴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¹⁵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¹⁶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¹⁷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¹⁸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¹⁹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리라.” ²⁰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4일

연중 제4주간 화요일

제1독서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8,9-10.14ㄱㄴ.24-25ㄱㄴ.30-19,3

그 무렵 ⁹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의 얇은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

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¹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 주었다. “압살롬이 향엽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¹⁴ 요압은 표창 셋을 손에 집어 들고, 압살롬의 심장에 쏘았다.

²⁴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벽을 거쳐 성문 위 망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²⁵ 파수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달려온 그에게 ³⁰ 임금이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나 섰다. ³¹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 주셨습니다.”

³²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묻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임금님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19,1}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였다.

²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³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6(85),1-2.3-4.5-6(◎ 1ㄱ)

- ◎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이옵니다. 제 영혼 지켜 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
-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오니, 주님, 이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마태 8,17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1-43

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²²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²³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²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났다.

²⁵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²⁶ 그 여자는 숭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²⁷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²⁸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²⁹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³⁰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³¹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³²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³³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³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³⁵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³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³⁷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³⁸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³⁹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⁴⁰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⁴¹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⁴²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⁴³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5일 수요일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인구 조사를 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2.9-17

그 무렵 다윗 ²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⁹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팔십만 명, 유다에서 오십만 명이였다.

¹⁰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에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¹¹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자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¹²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¹³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¹⁴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¹⁵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 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칠만 명이 죽었다.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17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2(31),1-2.5.6.7(◎ 5번 참조)

-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큰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6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²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³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⁵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⁶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6일 목요일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제1독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솔로몬아,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1-4.10-12

¹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²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³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⁴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¹⁰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¹¹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¹²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역대 29,10ㄴ.11ㄱㄴ.11ㄹ-12ㄱ.12ㄴ.12ㄹㄱㄹㄱ(◎ 12ㄴ)

- ◎ 주님,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시나이다.
- 주님,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
-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
- 주님, 나라도 당신의 것이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으뜸, 그 위에 드높이 계시나이다. 부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오나이다. ◎
-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시나이다. 권능과 권세가 당신께 있으니, 당신 손을 통하여, 모든 이가 힘과 영예를 얻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그때에 예수님께서 ⁷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들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⁸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⁹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¹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¹¹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¹²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¹³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7일

연중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였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47,2-11

² 친교 제물에서 굳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³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⁴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 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⁵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⁶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 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7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 버렸으며, 오늘날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8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9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¹⁰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¹¹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8(17), 31.47과 50.51(◎ 47번 참조)

- ◎ 내 구원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그분은 방패가 되신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
-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4-29

그때에 ¹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¹⁵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¹⁶ 헤

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¹⁷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¹⁸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¹⁹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²⁰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들곤 하였기 때문이다.

²¹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²²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²³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²⁴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²⁵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²⁶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²⁷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²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²⁹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8일

연중 제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주님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3,4-13

그 무렵 솔로몬이 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천 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⁵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7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시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8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9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13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9.10.11.12.13.14(◎ 12ㄴ)

- ◎ 주님, 저에게 당신 규범 가르치소서.
- 젊은이가 어떻게 제 길을 깨끗이 가리이까? 오로지 당신 말씀 지키는 것이옵니다. ◎
-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 계명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
- 행여 당신께 죄를 지을세라, 마음 깊이 당신 말씀 간직하나이다. ◎
- 주님,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저에게 당신 규범 가르치소서. ◎
- 당신 입에서 나온 모든 법규, 제 입술로 이야기하나이다. ◎
- 온갖 재산 다 얻은 듯, 당신 법의 길 걸으며 기뻐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그때에 ³⁰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³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³²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³³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³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9일 연중 제5주일

제1독서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⁷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⁸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⁹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리라.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쏫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¹⁰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4-5.6-7.8ㄱ과 9(◎ 4ㄱ)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¹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시다. ²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³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⁵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0일 월요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제1독서 〈계약 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8,1-7.9-13

그 무렵 ¹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 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²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³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⁴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⁵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

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⁶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 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⁷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⁹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둔 것이다.

¹⁰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¹¹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¹²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¹³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2(131),6-7.8-10(◎ 8ㄱ)

- ◎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드소서.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3-56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⁵³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⁵⁴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⁵⁵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⁵⁶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

(세계 병자의 날)

제1독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8,22-23.27-30

그 무렵 ²²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²³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²⁷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²⁸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²⁹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³⁰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4(83),3.4.5와 10.11(◎ 2)

- ◎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 주님의 프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
-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

-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 ◎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시다. 하느님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사옵시다. ◎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 36, 29 참조

- ◎ 알렐루야.
-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 1-13

그때에 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²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³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⁴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돗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⁵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⁷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⁹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¹⁰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¹¹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¹²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¹³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2일
연중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았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0,1-10

그 무렵 ¹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²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³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⁵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⁶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⁷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⁸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⁹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¹⁰ 그리고 나서 여왕은 금 백이십 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7(36),5-6.30-31.39-40(◎ 30ㄱ)

- ◎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 주님께 네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네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 ◎
-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가르침 그 마음에 있으니, 걸음걸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에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 ◎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4-23

그때에 ¹⁴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⁵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¹⁶⁾

¹⁷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¹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¹⁹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뱃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²⁰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²¹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²²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²³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목요일

제1독서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떼어 내겠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1,4-13

솔로몬 임금의 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⁵ 솔로

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⁶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⁷ 그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⁸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⁹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어, ¹⁰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¹¹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 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¹²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 내겠다. ¹³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 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6(105),3-4,35-36,37과 40(◎ 4ㄱ)

- ◎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 행복하여라, 공정하게 사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시어 구원을 베푸소서. ◎
- 백성들이 이민족들과 어울리면서, 그 행실을 따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니, 제 스스로 뗏에 걸렸네. ◎
- 백성들은 자기네 아들딸을 마귀에게 바쳤네. 주님은 당신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태우시고, 당신 소유를 역겨워하셨네. ◎

복음 환호송

야고 1,21

- ◎ 알렐루야.
-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 ◎ 알렐루야.

복 음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24-30

그때에 ²⁴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²⁵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²⁶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⁸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²⁹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³⁰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제1독서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였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1,29-32; 12,19

²⁹ 그때에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³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³¹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³²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 두겠다.” ^{12,19}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1(80),10-11ㄱ,12-13,14-15(◎ 11ㄱ과 9ㄴ 참조)

◎ 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 올렸다. ◎
-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고집 센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은 제멋대로 제 길을 걸어갔다. ◎
-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적들을 치리라. ◎

복음 환호송

사도 16,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7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³²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³³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³⁴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³⁵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³⁶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³⁷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5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예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2,26-32; 13,33-34

그 무렵 ²⁶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²⁷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²⁸ 그래서 임금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²⁹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³⁰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³¹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³² 예로보암은 여덟째 달 열닷셋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13,33}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³⁴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6(105),6-7ㄱ,19-20,21-22(◎ 4ㄱ)

- ◎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 조상들처럼 저희도 죄를 지었나이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
-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불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풀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맞바꾸었네. ◎
-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축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0

¹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²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³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⁴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⁵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⁶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⁷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⁹ 사람들은 사천 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¹⁰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 15-20

¹⁵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¹⁶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¹⁷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¹⁸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¹⁹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²⁰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 1-2.4-5.17-18.33-34(◎ 1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2독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 6-10

형제 여러분, ⁶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⁷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⁸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⁹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¹⁰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또는 5,20-22ㄴ,27-28,33-34ㄴ,37〉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⁷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¹⁹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²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²¹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²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²³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²⁵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간할 것이다. ²⁶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뉘까지 갇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²⁷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²⁸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²⁹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⁰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³¹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³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³³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³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³⁵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³⁶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회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³⁷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7일

연중 제6주간 월요일

제1독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리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1,1-11

¹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

²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³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

다. ⁴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⁵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⁶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⁷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에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⁸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⁹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¹⁰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스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¹¹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 67.68.71.72.75.76(◎ 77ㄱ 참조)

- ◎ 주님,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잘못했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르나이다. ◎
- 당신은 좋으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
- 고통을 겪은 것, 제게는 좋은 일, 당신 법령을 배웠나이다. ◎
-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주님, 당신 법규가 의로움을 저는 아나이다. 고통을 겪어도 저는 마땅하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 11-13

그때에 ¹¹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¹²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

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¹³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12-18

¹²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¹³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¹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¹⁵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¹⁶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¹⁷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¹⁸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4(93),12와 13ㄴ.14-15.18-19(◎ 12ㄴ 참조)

- ◎ 주님, 당신이 깨우쳐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옵니다.
-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이 깨우쳐 주시고, 당신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불행의 날에도 평온을 주시나이다. ◎
-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재판이 정의로 돌아오리니, 마음 바른 이 모두 그 뒤를 따르리라. ◎
- “내 다리가 휘청거린다.” 생각하였을 때,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받쳐 주셨나이다. 수많은 걱정들 제 속에 쌓여 갈 때, 당신의 위로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4-21

그때에 ¹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는 한 개밖에 없었다. ¹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
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¹⁶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¹⁷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
게도 완고하냐? ¹⁸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
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¹⁹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
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⁰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
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19일

연중 제6주간 수요일

제1독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19-27

¹⁹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
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²⁰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
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²¹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²²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²³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²⁴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²⁵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²⁶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²⁷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14), 2-3ㄱ, 3ㄴㄷ-4ㄱㄴ, 5(◎ 1ㄴ)

- ◎ 주님,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누가 지내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복음 환호송

에페 1, 17-18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눈먼 이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 22-26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²²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라고 청하였다. ²³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²⁴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

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⁵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0일

연중 제6주간 목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9

¹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²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³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⁵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⁶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⁷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⁸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⁹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2-3.4-5.6-7(◎ 7ㄱ)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3

그때에 ²⁷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²⁸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²⁹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³¹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³²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³³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1일
연중 제6주간 금요일

제1독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4-24,26

¹⁴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¹⁵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¹⁶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⁷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¹⁸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¹⁹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²⁰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²¹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²²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²³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²⁴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²⁶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 1ㄴㄷ-2,3-4,5-6(◎ 1ㄷ)

- ◎ 행복하여라, 주님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부귀영화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의로움 길이 이어지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5,1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34—9,1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³⁵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³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³⁷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³⁸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인 원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5,1-4

사랑하는 여러분, ¹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²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³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⁴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지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¹³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¹⁵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⁶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¹⁸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¹⁹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제1독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9,1-2.17-1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¹⁷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¹⁸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6-23

형제 여러분, ¹⁶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¹⁷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¹⁸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¹⁹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피로 붙잡으신다.”²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²¹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²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³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1요한 2,5 참조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³⁹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⁴⁰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⁴¹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⁴²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⁴³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⁴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⁴⁵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⁴⁶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⁴⁷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⁴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4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지 마십시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3,13-18

사랑하는 여러분, ¹³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¹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¹⁵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¹⁶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¹⁷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¹⁸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8.9.10.15(◎ 9ㄱㄴ)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29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¹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¹⁵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⁷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병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¹⁸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¹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²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²¹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²²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²³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²⁴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²⁵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병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²⁶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²⁷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²⁸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제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²⁹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5일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제1독서 〈청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잘못 청하기 때문입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10

사랑하는 여러분, ¹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²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 보지만 얻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³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⁴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⁵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⁶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⁷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⁸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⁹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¹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5(54),7-9.10ㄷ-11ㄱ.23(◎ 23ㄱㄴ 참조)

- ◎ 너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라.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 저는 생각하나이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쉬련마는. 멀리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련마는. 폭풍우 세찬 바람 피하여 은신처로 서둘러 가련마는. ◎
- 주님, 형클어 버리소서. 악인들의 말을 갈라 버리소서. 성안의 폭력과 분쟁을 제가 보고 있나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도나이다. ◎

- 너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로운 사람이 흔들리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 ◎ 너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라.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갈라 6,14 참조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30-37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³⁰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³¹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³²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³³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³⁴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나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³⁵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³⁶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³⁷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6일
연중 제7주간 수요일

제1독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말해야 합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7

사랑하는 여러분, ¹³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¹⁴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¹⁵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¹⁶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¹⁷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9(48),2-3.6-7.8-10.11(◎ 마태 5,3)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어라. ◎
- 뒤쫓는 자들이 악행으로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한 날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하라?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
-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랴?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늘. 그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령을 아니 보 기에는. ◎
- 정녕 그는 보리라, 지혜로운 이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사라진다.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 둔 채 모두 사라지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38-40

그때에 ³⁸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⁴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7일

연중 제7주간 목요일

제1독서 <일꾼들에게서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이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1-6

¹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²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³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⁴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⁵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⁶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9(48),14-15ㄱ-15ㄷㄹ-16,17-18,19-20(◎ 마태 5,3)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 말을 좋아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들처럼 저승에 버려져, 죽음이 그들의 목자 되리라. ◎
- 아침에는 올곧은 이들에게 짓밟히고, 저마다 그 모습이 썩어 떠나면 저승으로 사라지리라. 하느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아귀에서 기어이 빼내시리라. ◎

- 누군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
- “네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사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할지라도, 조상들이 모인 데로 내려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

복음 환호송

1테살 2,13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41-5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¹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⁴²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⁴³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⁴⁾

⁴⁵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⁶⁾

⁴⁷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⁴⁸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⁴⁹ 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⁵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월 28일
연중 제7주간 금요일

제1독서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9-12

⁹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¹⁰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¹¹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욕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¹²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의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3(102),1-2.3-4.8-9.11-12(◎ 8ㄱ)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깨닫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¹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²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⁴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⁶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⁷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⁹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¹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¹²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학생 졸업 미사

제1독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1,2-7

²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³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⁴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 ⁵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⁶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⁷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8.9.10.12-13ㄱ(◎ 요한 6,68ㄷ)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

제2독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24

형제 여러분, ¹⁷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¹⁸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¹⁹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 냅니다.

²⁰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²²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²³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²⁴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5,13,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2.13-16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¹⁵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¹⁶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